



‘애향 노인 쉼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노인들 몰리며 애향운동장 부근 실내 공간 조성 장기간 무허가 운영... 증축·이전 반영 여부 주목

공공체육시설인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부근에 들어선 이른바 ‘애향 노인 쉼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시설 증축 등을 바라고 있지만 당초 허가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5일 제주시와 쉼터 이용자들이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 2010년쯤 제주도의회 모 의원과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 기존 벤치 등을 활용해 지붕을 씌우고 문을 달아 56㎡(17평) 규모의 실내 공간으로 조성됐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이용자들의 출입을 막고 시설을 폐쇄하는 등 사실상 제주시에서 관리해왔다. 지난 5월부터 다시 문이 열리면서 쉼터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노인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쉼터에서 만난 강 모(제주시 오라동)씨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지만 용담동, 건입동, 삼도동에서 일부러 이곳을 찾는 노인들이 많다. 평소 35~40명이 오는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80명 정도가 모인다. 하지만 실내가 비좁아 노인들이 밖에서 추위에 떠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그동안 이용자들

이 ‘애향 노인 쉼터’로 이름 붙인 이곳에 대해 도의원 등이 증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용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최근 제주시가 애향운동장 본부석을 철거해 개·보수 사업이 진행 중인 것과 연계해 신축 시설로 노인 쉼터를 옮기는 방안을 검

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 도의원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음주 등이 목격되면서 애향운동장 인근에서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등 마찰이 있었다. 다만 노인들의 휴식 공간을 보장해주면서 양성화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쉼터를 철거하는 대신 신축 중인 애향운동장 시설에 공간을 옮겨 달라는 건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전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 쉼터 공사를 할 때 업무 담당자가 건축 신고나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애향운동장에 오는 노인들이 장거나 바둑을 두고 운동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 쉼터 증축이나 이전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며 “앞으로 이용자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시 애향운동장 인근에 시설돼 어르신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 최근 증축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질소와 인산, 칼륨 등 비료 구성 성분이 기준치에 미달된 불량비료.

불량비료 팔아 57억원 ‘꿀꺽’

50대 농업법인 대표 검거... 보조금 6억도 챙겨

공모자 2명도 함께 붙잡혀 자치경찰 “범행 계획적이고 악의적... 죄질 매우 불량”

불량 비료를 만들어 50억원대 불법 이익을 챙기고 6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비료 생산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판매해온 비료생산 농업회사 법인 공동대표 A(54)씨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3명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업체가 어려워지자 또 다른 공동대표와 불량비료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상 표기된 원료 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해 9억6000여만원의 원가를 절감해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렇게 제조된 비료 10종 9340t, 46만7000여포를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여원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불량 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공성고토가 보증합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황산가리개 등 등록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허위로 문구를 표시했고 체중유박이나 분사 등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함유된 것처럼 허위광고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2000여만원까지 불법 수급했다.

제주자치경찰단 고경근 수사과장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오로지 이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위영석기자

코로나19 ‘제주안심코드’ 역사속으로...

도, 출시 2년 만에 운영 종료... “효용성 없고 비용 많이 들어”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앱이 출시 2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안심코드 앱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앱으로 지난 2020년 11월 출시됐다. 도민과 관광객이 스마트폰에서 제주안심코드 앱을 내려받

아 가입한 후 입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출입이 인증되는 방식이다.

제주안심코드 앱은 개인이 포털 등을 통해 따로 QR코드를 발급받은 뒤 업소마다 설치된 리더기에 스캔하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시 2년 만에 이용자 34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정착됐다. 2021년 12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되면서 5만7000여 사업장과 개인 261만명이 이 앱을 이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2월 확진자가 직접 동선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 방식의 역학조사로 전환한데 이어 3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마저 전면 중단하면서, 제주안

심코드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안심코드는 도민과 관광객 할 것 없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제주의 자산”이라며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왔지만 이용 실적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수개월째 운영비만 축내자 결국 앱 운영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제주안심코드 앱 서버비 등 운영 비용만 한달에 600만~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안심코드 기능은 방역정책 공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운영 비용 대비 효용성이 적어 불가피하게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헤어지자 스토킹 40대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헤어지자 여자친구 집에 수차례 찾아가 전화로 욕설을 한 40대 A씨를 스토킹차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B씨의 집을 찾아가 15회 정도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4일 오후 11시30분, 익일 오전 1시쯤에도 B씨 집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던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백영탁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7204-1286)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사전예약 방문생산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증자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수산리735)

증자등록번호 제18-서귀포-2021-20-02호

우량 감귤묘목

우수한 품질의 감귤묘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 · 천혜향 · 황금향
한라봉 · 공천
오하라베니 · 조경용 하귤

※ 현장방문 환영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68-168

제주감귤묘목영농조합법인
010.7204.1286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원터프린스	3년생
감귤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증자관리사 010-3690-2453